

국제리뷰

KWDI 아태 개발협력 포럼

|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09:00~15:30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룸

| 주 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 35차 유네스코 세계 총회 참가 후기
윤 현 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G20 국가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최 윤 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제 35차 유네스코 세계 총회 참가 후기

윤 현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유네스코 세계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어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또한 세계 총회는 그 개최 자체만으로도 유네스코 본부 및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결기구”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 35차 유네스코 총회는 2009년 10월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10월 6일 개막식을 공식일정으로 시작하여 23일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그리고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유네스코의 각종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 제반 동향을 파악하며, 관심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동시에 한국의 활동에 대해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태현 원장은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인문사회분과위원으로써 한국대표단으로 제 35차 유네스코 총회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제기구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인문사회분과위원회의 19일 인권관련 회의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젠더 및 양성평등의 중요성’은 금번 회의에서 참석한 많은 국가의 대표단들의 연이은 적극적 제언을 통해 그 중요성이 대변되었다.



〈제 35차 유네스코 세계 총회 인문사회분과 위원회 회의장 전경〉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사무국은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각국의 의제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접수 및 취합을 하였으며, 각국 대표단은 이미 배포된 대표국들의 의제 및 핵심 논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35차 세계 총회에 참석 하였으며, 원활한 회의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다.

2010-2011년 의제 및 쟁점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크게 “전지구적 사회적 도전에 대응” 그리고 “새로운 전지구적 윤리문제 대응”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각각의 우선 순위 쟁점 사항들은 동시에 좀더 구체적인 주요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인권증진과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한 대화 활성화’, ‘1-2 사회변동관리를 위한 연구-정책간 연계 강화’, ‘새로운 전지구적 윤리문제 대응’ 등으로 구체화 되어 논의 되었다.

2010-2011년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정규예산 미화 29,654,100USD로 제안되었으며, 이중 32.6%는 직접 활동 및 사업을 통한 경비이며, 67.4%가 인건비로 구분이 되었다. 또한 비정규 예산의 경우 미화 27,027,700USD로 제시되어있으며, 34차 세계총회와 비교했을 때, 정규예산은 소폭 증가한 편이며, 비정규예산은 2배 이상 증가했다.

35차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의 키워드: 학제간, 초 분과적 노력과 협력

올해의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 회의의 키워드는 inter-disciplinary (학제간) 그리고 inter-sectoral (초분과적)이다.

즉, 혼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제간, 초분과적, 기구간의 기능을 넘어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인류 번영 및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접근법’ 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좀더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 그리고 연수 및 훈련을 통한 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각 우선순위별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 사무국 회장인 살와 사니오라 바씨리는 (Ms Salwa Saniora Baassiri) 인류의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적 책임, 평등과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국제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으며, 더욱 이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복잡 다양한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좀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문사회분과위원회 회의 휴식시간〉

기후변화

과학분과와 인문사회분과와 같이 진행된 회의에서, 의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유네스코 전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더 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전략과 구체적인 행동 방안에 대한 모색은 과학적이고,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관점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덴마크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의견안을 북유럽국가들과 함께 제안했다. 특히 다자간의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12월에 있을 코펜하겐에서의 UN기후변화회의에서 유네스코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유네스코의 기능과 목표에 부합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미래의 주인공인 다음세대, 즉 기후변화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임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 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다각도적 (multi-dimensional) 노력과 초분과적 (inter-sectoral) 그리고 학제간의 (inter-disciplinary) 긴밀한 협동 노력을 통해서 실현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기구 내에서 뿐만아니라, UN기구 전체를 통틀어 이러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각국의 정책개발기구 및 관련 기구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야함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해 기존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긴급히 대처해야하는 이유 및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역설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구 및 분과 그리고 그 범위와 경계를 넘어서서, 좀더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전 인류적 위기 및 당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의장은, 초분과적, 학제간 협력 및 초기구적 노력의 필요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한국 대표단도 많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동의를 의사를 표현하였다.



〈'다양한 접근법 및 분과 / 기구를 넘어서는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동의의 표현〉

필리핀 대표단은 지난 여름 4시간 안에 400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큰 인명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원래는 장마기간과 허리케인 기간이 분리 되어있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그 두 기간의 경계 및 예측가능성 정도가 불투명해졌으며, 이로인해 그 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막대했음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관찰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변형된 '새로운 패턴'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 할 수 없어져버린 '지금의 상태'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연구 및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요르단 대표단은 이러한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임을 설명하고,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과 협력 사업 개발을 제안했다. 코스타리카 대표단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에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스웨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실행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책을 제안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교육적 기여도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으며, 바로 교육을 통한 방법이야말로 결과 지향적 노력을 가능케 하는 좋은 수단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마다가스카 대표단은, 이미 물에 대한 접근권으로 인해 벌써부터 물로 인한 분쟁이 지구 곳곳에서 관측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은 훨씬 더 취약한 계층임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여성이야말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당사자임을 강조하였다. 해서, 그 시각에 있어서도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참여자'로서의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학제간, 초분과적 노력과 함께, 총체적인 시각을 통한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환경문제역시 도덕적 회고 및 반성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선행조건임을 설명했다. 파키스탄 대표단은 리오 환경 선언이 전세계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듯이, 오



늘날 우리는 많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목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지구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감당할 수 없는 ‘촉박한 시점’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과학 / 생명 윤리

우선순위 2에 해당하는 “과학 /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의견이 있었으나, 요르단 대표단의 발언을 통해 공유된 많은 수의 의견들은, 즉 도덕적 가치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전히 과학 윤리의 측면만 고려하는 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 윤리의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써,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결과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도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도 어떤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면밀히 연구/검토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스웨덴 대표단 역시 정책적 노력과 연구도 중요한 만큼,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적극적인 “WIN-WIN”을 통한 상승효과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권 및 젠더

인권선언이 선포되고 약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태는 60년 전과 같은 상황이며, 앞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장려 및 양성평등, 아동인권, 민주주의의 관련해서 연구/사업/활동을 신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강조 되었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이 경제 위기로 집중되어있기에, 중요한 문제들이 대변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인권적 기반을 둔 접근 법을 통해 추구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그래서 모든 UNESCO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유엔 기구에 있어서, 인권을 기반으로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권보호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반영을 겨냥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되었으며, 인권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유네스코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장려하기 위한 세계 프로그램 (World program for HR education program and promotion)등이 적극적으로 도입 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알제리 대표단은 인권선언 60년은 인류의 역사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그동안 인류가 이룩해온 노력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른 시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문제인데, 실제로 인류가 당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인류의 문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서도 그 성취에 대해 스스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력에서는 인권에 대한 고려가 잘된 문화권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인권 관점에서의 교육 그리고 빈곤퇴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토고 대표단은 인권 교육을 통한 유네스코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권

교육은 인권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되며, 참여자의 동의를 불러일으키고, 지각적이고 교정된 행동으로 그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슬로베니아 대표단은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늘 2순위로 밀려있었던 ‘젠더(Gender) 및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한 주제도 유네스코 차원에서 신중히 프로그램 및 연구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학 및 젠더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노력은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되어야함을 거듭 촉구했다.

이탈리아 대표단은 젠더를 포함한, 인종차별 및 차별 철폐에 대한 연구 및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더욱 안배 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스웨덴 대표단은 신임 보코바 사무총장의 핵심 관심분야인 양성평등의 이슈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양성평등의 시각은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인문사회분야에 분배된 예산이 가장 적으며, 이로 인해 우선적으로 대변되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일부분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젠더 및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관련 정책적 노력 및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 지구적 위기에 맞추어 유네스코도 인권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 및 여자아이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 시켜야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케냐 대표단은 여성의 참여를,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한 여성의 참여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조명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야말로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권한 및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하였다.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인권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층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잠비아 대표단도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언급하며,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야함을 강조했다. 브라질, 파키스탄, 베닌 대표단도 청소년, 젊은이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며, 유네스코 본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지 및 지원이 되길 바랐다.

끝으로 프랑스 대표단은 인권의 정의에서 “인류 보편적 선언”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보편적이라는 말이 더욱 강조되어 실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미리보는 아이린 보코바 신임 사무총장의 전략 및 방향

인권 및 젠더관련 의제에 대한 신임 보코바 사무총장의 의견은 대변인을 통해 전달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력으로 여성과 평화에 관련된 연구 센터를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쟁을 겪거나 극복한 국가



들의 많은 참여를 권했으며, 분쟁과 여성 그리고 전후 복구 국가들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 것임을 전했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네트워크 및 앞으로 각국의 관계 부처 장관들과의 대화의 장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대교-이슬람교간의 긴장을 완화 시키는 노력 및 관련 국제이슈를 논할 때에 있어서도,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보코바 신임 사무총장 초청 젠더 포럼〉

참석 후기

처음으로 참석한 제 35차 유네스코 세계 총회는 회의에 임하는 대표단의 진지함에 놀랐고, 논의되는 주제의 중요성과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세계 속 나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논의의 핵심 내용 및 그 핵심 내용을 담게 되는 단어의 ‘심리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는 대표단들의 진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혹자는 단어에 대한 논의는 조금 불필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 속의 많은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 그리고 정책제안자들이 고민해왔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 ‘단어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의 입에서 친숙하게 표현되고, 생각에 반영되며, 행동에 나타날 수 있는 즉, 문화적으로 ‘친숙해진’ 단어는 그 의미가 우리의 두개골을 타고 공명되어,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5차 유네스코 세계 총회의 키워드인 “초분과적-학제간-다각도의-문제해결을 위한-협력”이라는 단어들도 우리의 말속에 더욱 친숙해져서 우리의 생각을 울리고 행동을 촉진시켜 ‘살아 움직이는 단어’가 되길 바라며, 제 35차 유네스코 세계 총회 보고서를 마친다.

G20 국가의 여성정책 추진체계¹⁾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 결과, 내년도 G20 정상회담 개최국의 하나로 한국이 선정되었다. 한국은 내년도 G20의장국으로서 차기의장국(2009년)과 전임의장국(2011년)의 임기까지 3년 동안 G20의장국단으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국제 경제협력의 최상위 모임(premier forum)으로서 G20회담이 가지는 위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다른 영역에서의 국가간 교류, 특별히 여성정책과 관련한 교류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의 첫 시작으로 본고에서는 G20국가들의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정책 추진체계는 해당 국가의 여성정책 현황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서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의 여성정책 추진상황과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외국 사례 탐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여성정책 추진기구²⁾와 정책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주요 부처의 내부 혹은 산하에 군데군데 포진하고 있는 형태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정책 기구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내에 위치한 여성국(Women's Bureau)을 들 수 있다. 여성국의 주요 기능은 고용상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종 및 나이 등으로 인한 고용 불평등을 제거하고, 일·가정양립문제 해결하는 한편, 과학기술 여성들의 경력 지원, 직업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주도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연방정부차원의 고용평등문제를 조정하는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고용 차별 관련 법 해석 및 정책의 모니터링, 피해자 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외교부 내에도 세계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권리보장을 위한 세계여성문제국(Office

1) 본 원고는 여성부 용역과제 <2009년 여성정책 전략센터>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각국의 고유 언어로 표기된 본래 명칭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되도록 영문 명칭을 기재하였다



of Global Women's Issues)이 자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국(Office on Women's Health)에서도 여성의 건강 관련 활동, 프로그램,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내의 여성폭력과(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종류의 여성폭력 종식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혁신향상국(Office of Innovation and Improvement)에서는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교육, 상담활동 및 평가 등을 통해 여학생들의 교육적 평등을 장려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여성정책은 연방정부 문화부(Department of Heritage) 산하의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 SWC)이다. 1976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2004년까지 여성지위 담당 장관이 감독하는 독립된 연방기구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문화부 장관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비록 문화부 산하로 편입된 상태이나, 여성지위청의 독립성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지위청의 핵심적인 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성지역기금(Women's Community Fund)과 여성 파트너십 기금(Women's Partnership Fund)을 통해 캐나다 전역의 여성단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연방정부 내의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성인지적분석(Gender-based Analysis)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및 감독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지위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준주정부 사이의 여성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는 여성지위청 외에도 각 부처 내에 다양한 여성관련 부서들이 있다. 보건부 산하의 여성보건국(Women's Health Bureau), 인적자원개발부 산하의 여성국(Women's Bureau), 법무부 산하의 남녀평등자문위원실(Office of the Senior Advisor on gender Equality), 캐나다 국제개발기구 산하의 남녀평등과(Gender Equality Division), 그리고 가족·자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캐나다 조세청(Canada Revenue Agency)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

영국의 여성정책은 정부평등사무처(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O) 내에 위치한 여성·평등단(Women and Equality Unit)이다. 1997년 설립당시,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DWP) 내에 여성담당국(Women's Unit, WU)으로 설치되었으나, 2001년 여성·평등단(Women and Equality Unit)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정부평등사무처로 통합되었다. 정부평등사무처는 정부의 독립적인 부처로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불평등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비록 여성정책 전담기관이 정부평등사무처로 통합·흡수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단순히 여성정책 기관의 지위 하락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정부평등사무처 자체가 여전히 여성 관련 정책을 핵심업무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부평등사무처로 통합되면서 소수 민족 여성과 소수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평등사무처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적인 평등과 관련되는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둘째, 정부 간의 여성문제를 책임지고, 셋째, 정부 내의 비부처공공기관인 여성위원회(the Women's National Commission, WNC)와 평등인권위원회(Commission on Equality and Human Right, CEHR)의 지원을 맡는다. 여성위원회와 평등인권위원회는 비부처공공기관으로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정부의 정책에는 자유로운 성격을 지니는 기관으로 정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여러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유연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기회균등부(Dipartimento per le Pari Opportunita)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기회균등부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여성관련 업무주무부서라기 보다는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조정, 감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는 등 국가 전체의 평등권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기회균등부의 내부 조직은 크게 사회경제조정실, 기회균등보좌실의 2개 실(office)과 인종차별부(National Racial Discrimination, NRD), 일반사무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경제조정실(Office for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은 기회 균등에 있어서의 유럽 구조기금의 계획 및 사용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조정하고 감시하며, 국내의 관계부처, EU, UN, 유럽 위원회, OECD와의 협조 속에서 사회정책 및 노동정책에서의 기회 균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한편, 기회균등보좌실(office for assistance in the field of equality equal opportunities)은 기회 균등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다른 공공 조직에 의한 이니셔티브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있는 평등위원회 사무국의 운용 및 조직화, 남녀 기회 균등의 문제를 규명한다. 또한 인종차별부(National Racial Discrimination)(UNAR)는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옹호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통합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세우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회균등부 내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 인신매매 · 폭력 · 노골적 착취 희생자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 성도착 및 아동 포르노 감시단, 여성할례방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여성기업인위원회와 같은 5개 위원회가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주요 여성정책기구로 내각부 내에 남녀공동참획회의(男女共動参画會議)와 그 사무국인 남녀공동참획국(男女共動参画局)을 두고 있다. 1947년 노동성 내에 부인소년국을 시작으로 여성정책조직을 설치하



였다가 1993년 부인문제만 취급하였던 조직을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 남녀공동참획담당실, 남녀공동참획 심의회로 바꾸어 역할의 확대하였다. 오늘과 같은 체제는 1999년 하시모토 수상 때 조정된 것이다. 남녀공동 참획회의는 내각부의 주요 회의 4개 가운데 하나로 남녀공동참획기본법에 관한 기본안 작성 및 주요사항 조사·심의, 정부의 실시 상황 감시의 기능을 한다. 산하에 성평등기본문제 전문조사회, 여성 폭력에 대한 전문 조사회, 고충처리·감시 전문조사회, 영향조사전문조사회의 4개 전문조사회를 두고 있다. 한편, 남녀공동참획국은 남녀공동참획회의의 사무국으로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획입안, 통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조직으로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男女共動参畫推進本部)가 있다.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는 남녀공동참획회의와 남녀공동참획국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총리가 의장직을 수행하며, 내각의 모든 장관들이 참석하는 여성정책 관련 최상위 정책 심의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후생노동성 내의 고용균등·아동가족국에서도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과 노동에 있어서의 여성문제, 저출산대책, 아동수당,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여성정책 전담기관은 노동부 산하의 여성권리와 평등처(Le Service des Droits des Femmes et L'egalite, SDFE)이다. 프랑스 노동부의 정식명칭은 ‘노동과 사회관계, 가족, 연대부’로서 가족, 노동, 장애인, 여성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는 각각 정부차관을 두고 있으나 여성문제에는 정부차관이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규모도 가장 작아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여성권리와 평등처의 일차적인 목표는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정치, 경제, 단체 생활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이 동등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둘째, 직업 선택에서의 평등, 고용에서의 평등, 직업교육에서의 평등, 기업 내 승진에서의 평등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인권의 평등과 인간 존엄성으로 특히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있다. 조직은 4과(bureau) 3부서(mission)로 구성되었으며, 업무 자문을 위해 4개의 자문기구(성 정보 고위 자문위원회, 남녀직업평등자문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전쟁 위원회, 여성폭력 도위위원회)와 1개의 감시소(남녀동수감시소)가 있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로 연방의 14개 부처 가운데 하나이다. 독일 최초의 여성정책 기구는 1950년에 설치된 내무부 내의 여성정책과이다. 내무부 여성정책과는 1972

년 ‘연방 청소년·가족·보건부’로 소속 부처가 바뀌었고, 1979년에는 실로 승격되었다가 1986년 ‘연방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의 설립으로 부로 승격되고, 2008년부터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는 6개 국이 있으며, 그 중 여성 관련 업무는 평등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평등국에서는 직업생활 기회평등과 연방평등법,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 임신, 여성건강, 여성과 장애, 유럽과 국제 평등정책, 역할변화와 참여, 남성, 이주, 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외에도 독일정부는 정책의 성주류화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성주류화 부처 간 연구그룹(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 Gender Mainstreaming)’을 발족하여 각 부처의 성주류화를 적용 및 실행을 촉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연방관청과 연방 법원 및 연방 관할 시설 등에 평등지위담당관을 임명하여 연방 행정에서의 여성 비율 증대, 상위직의 여성비율 증대를 촉진·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중국 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로는 국무원 산하의 여성·아동사업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와 중화전국여성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이하 ‘부련’)가 있다. 여성·아동사업위원회는 기존에 부련에서 담당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사업조정위원회를 대체하여 국무원에서 직접 여성아동사업을 담당하는 조정의사기구로서 1990년에 출범하였다. 주로 관련 정부부서에서 여성아동에 관한 각종 법률법규와 정책실시를 하는데 있어 협조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1949년 중국건국시기부터 존재해온 부련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종의 준국가정부기관로서 당과 정부를 위한 여성동원사업의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동시에 여성민중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중국여성발전형태에서도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정부조직상 국무원여성아동사업위원회가 부련의 상위기관이기는 하나, 사무실이 전국부련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고, 인력규모 또한 부련의 1/3 수준(약 100명)이라는 점에서 중국 내에서 부련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두 기관은 긴밀한 교차관계에 있다. 국무원여성아동사업위원회는 국가정부기관이라는 소속위치를 가짐으로써 정부의 여성정책을 조정, 제정, 협조, 감시하는 반면, 부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하고, 참여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인도에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여성·아동개발부(Ministry of Women & Child Development, WCD)가 있다. 인도의 여성·아동개발부는 1985년 인적자원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내의 여성·아동개발청(Department of Women & Child Development)으로 출발하였다가 지난 2006년 하나의 독립된 부처로 승격되었다. 인도의 여성정책은 양성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파워먼트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아동개발부에서는 NGO를 통해서 스와암시드하(Swayamsidha)라는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여성·아동개발부는 이를 감독·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아동개발부 산하에 있는 국립여성협의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NCW)가 있다. 1992년 설립된 국립여성협의회는 여성의 법적 이익 보호 및 법적 처치, 불평등사항에 대한 배상 및 여성 관련 정책 조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여성 관련 연구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은 여성아동부(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성아동부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여성의 권한부여와, 남녀 평등 실현, 아동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하고 정책을 체계화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성아동부의 목표는 첫째, 여성 임파워먼트 및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및 개발 활동을 달성하는 것, 둘째, 성주류화 및 아동복지의 제도화 강화, 셋째, 여성의 권한신장 및 아동의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기능 신장, 넷째, 여성 권익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향상이다. 현재 성주류화부, 여성 삶의 질 향상부, 여성보호부, 아동보호부, 시민사회 권한강화부, 부처사무국의 5개 부(deputy), 1개 사무처(secretariat)로 구성되어있다. 주로 여성 임파워먼트와 아동보호 및 복지개선에 관련하여 국가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거나, 의무이행에 대한 감독 및 업무와 관련한 제언, 고려사항 및 평가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노동부(Ministry of Labour) 여성고용일반과(General Department of Women Employment)와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내에 위치한 여성감독소(Women's Supervisory Offices)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 여성고용일반과는 기업체에서의 여성 고용 확대를 목표로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고용 5개년 계획 및 실행, 민간에서의 여성 고용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정부와 민간 간의 조정 업무, 관련 부서에서의 후속 작업 감독, 여성 취업 유도를 위한 고용 메커니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부 내에 위치한 여성감독소는 중앙의 여성감독이사회(the General Directorate of Women's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각 지역 여성감독사무소가 연계하여 움직이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의 여성감독사무소는 중앙 여성감독이사회에서 추진하

는 목표와 사업 등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는 동시에 각 지역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사우디 왕실의 위임을 받은 왕립여성위원회(National Women's Committee)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 일자리 발굴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2005년에 설립된 이 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수준의 여성 경제인 및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고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요인 제거에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멕시코

멕시코의 여성정책은 국립여성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las Mujeres; Inmujeres, 영문명: National Women's Institute)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립여성연구소는 중앙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립여성연구소장은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여성 관련 국제회의 및 협약 등에서 멕시코 여성 대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여성연구소는 모든 분야에서 멕시코 여성의 권리와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성주류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현재는 남녀간 평등을 위한 국가프로그램2009-2012(the National Program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09-2012; PROIGUALDAD)와, 연방공공정부의 조치를 수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여성 관련 기구로 국가차별방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to Prevent Discrimination; CONAPRED)가 설치되어 성별 차별 방지 및 철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부 산하 국립사회개발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에서도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는 Guerrero주와 Michoacan주에만 여성부(Secretaría de la Mujer de Michoacán, Secretaría de la Mujer de Guerrero)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주정부에서는 주 정부 차원의 여성연구소가 여성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로는 대통령 산하의 여성정책특별사무국(Special Secretariat of Policies for Women, SPM)이 있다. 여성정책특별사무국은 공공 정책에 여성의 특수성을 포함시키고, 여성들의 완전한 시민권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현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 다실바(Lula da Silva)의 취임과 동시에 설립되었다. 여러 정부 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와 행보를 함께 하면서 사회적, 인종적, 성적, 윤리적,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직은 장관실, 차관실, 제도화사무국, 프로그램 및 활동 감독 사무국, 기획사무국, 국립여성권리상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의 일차적인 기능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즉각적으로 명확한 여성 정책을 조언하고, 연방 정부



를 비롯 다른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며, 산하기관인 여성권리평의회와 함께 성 평등(gender equality) 증진 및 불평등적 정책을 감시하는 한편, 국내외 및 민간·공공부분에서의 협조 프로그램들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여성정책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여성위원회의 형태로(Consejo Nacional de la Mujer) 자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여성정책기구인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정부 하에서 건강사회활동부(Stid y Acción) 내 인간·가족개발청(Subsecretaría de Desarrollo Humano y Familia)에 속한 국가여성국(Dirección Nacional de la Mujer)을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1987년 여성청(Subsecretaría de la Mujer)으로 전환되었고, 1992년 메넬정부 하에서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여성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Mujer)로 바뀌었다. 국가여성위원회는 양성평등에 대해 정부를 대리하는 기관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개발에 여성들이 총체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문화적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여성위원회는 주로 성 평등(gender equity)의 문제를 입법화하고,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극복하도록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갖는 공공 정책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국제적 조약의 효과적 실행을 촉진하고 감시,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토론과 제안들을 실행할 논의의 공간 마련, 다른 부처에서의 정책에서 성 주류화 반영, 사법 영역에서의 여성 활동에 대한 제도적 강화 등이 있다.

러시아

러시아의 여성정책 기구로는 1993년 대통령실에 설치된 ‘여성·가족·인구위원회(Commission for Women, the Family and Demography)’가 있다. 여성·가족·인구위원회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제공, 가족지원 및 인구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또한 1996년에는 노동사회개발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내에 여성가족아동과(Department for Women, the Family and Children)를 신설하여 가족정책의 통합 및 성평등 보장, 아동복지 발달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정책부(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responsible for social affairs) 내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6년에 설립된 여성진보위원회(Commission on the Advancement of Women)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구이다. 여성진보위원회는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표 및 NGO와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조직으로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과 부처간 조정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노동사회개발부에서는 여

성단체들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조직하여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체들의 행동을 통합적으로 DB화하고 있다. 또한 1994년 러시아의 범국민대회(all-Russian conferences)에서 여성을 위한 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범여성대회(all-Russian women's conferences)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발전과 안녕을 위한 전략들을 공유하고 있다.

터키

터키에서는 총리실 내에 위치한 여성지위부(General Directorate on the Status of Women)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 문제를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1987년 사회계획부(General Directorate on Social Planning)내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n Policies Regarding Women)가 설립된 것을 근간으로 1990년 여성지위부가 공식 선포되었다. 여성지위부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수호하고,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고 전략을 개발한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 본부,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발 본부, 외국관련 본부, 자료 및 출판 본부의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장관 자문위원회와 법률자문기구와 같은 2개의 자문기구와 보조적인 기구로 인적자원지원본부가 있다.

호주

호주의 여성정책은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 원주민사업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 내에 있는 여성사무처(Office for Women, OfW)가 전담하고 있다. 여성사무처는 1974년 설립당시, 연방정부 내 총리실에 설치되었으나, 2004년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 원주민사업부의 하위부서로 통합되었다.

여성사무처의 기본적인 목표는 여성의 경험, 이슈, 관점을 정책과 내각, 예산편성 등에 모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성사무처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안전 영역이다.

호주의 여성정책 부서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권한의 축소와 증가가 반복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주의 운동의 확산의 결과로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지만, 그 후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장기 집권에 따라 그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현재 여성사무처는 약 5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부처의 여성관련 부서도 폐쇄된 상황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정책전담기구는 행정부, 입법부,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여성정책조직들을 통하여 구성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기구로는 1997년 대통령 산하 정부조직으로 설립된 여성지위국(the National Office on the State of Women, OSW)이다. 여성지위국은 정부내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만형 격으로 국가의 여성정책을 조정하며, 성평등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을 위한 수뇌부 역할을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Gender Focal Points)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처의 성평등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감시·평가하고, 타 부처 및 시민단체의 협력을 도모하며, 공무원들의 성인지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은 받지만, 헌법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성평등위원회(Commission on Gender Equality, CGE)가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부의 법률안이나 법안들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로 헌법에 의해 핵심적인 국가정책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입법부에도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동감시위원회(The Joint Monitoring Committee o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tatus of Women, Jt Com Qol)'가 설치되어 의회를 거쳐가는 모든 법안들의 성 평등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G20의 마지막 참여국은 EU의장국이다. 현재 2009년 하반기 EU의장국은 스웨덴이 맡고 있으나, 의장국이 6개월마다 윤번제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의장국이 아닌, EU의 자체의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EU 기구 중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고용·사회문제·평등한 기회를 위한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가 있다. 이 기구는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보장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고용 확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사회적 안전을 위한 협력, 더 나은 근무환경, 사회포용 및 차별 금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지원한다. EU의 양성평등사업(Gender Equality)은 EU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EU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2010년까지 젠더 로드맵을 실행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EU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양성평등사업에서는 유럽연합 양성평등 연구소(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를 운영하는 한편, 양성평등을 위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를 운영하고 있으며, EU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성들의 네트워크(The European Commission's network of women in decision-making in politics and the economy)를 발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EU는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양성평등연구소(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는 성 평등 증진 및 성차별적 문제 환기를 위하여 회원국과 유럽 연구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로 성 관련 문제에 관한 비교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방법론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성평등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Experts' Forum)을 운영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최선의 실천과 대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참 · 고 · 문 · 헌

- 김민정 외(2009).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 여성부의 기능 역할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여성위원회.
- 김원홍 외(2008). 주요국의 여성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혜신 외(2007). 미래를 대비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및 조직개편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http://www.g20.go.kr/>
-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reports.htm#r>
- 미국
 - <http://www.dol.gov/wb/>
 - <http://www.eeoc.gov/>
 - <http://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cwg>
 - <http://www.state.gov/s/gwi/>
 - <http://www.os.dhhs.gov/>
 - <http://www.ovw.usdoj.gov/>
 - <http://www.ed.gov/programs/equity/index.html>
- 이탈리아
 - <http://www.pariopportunita.gov.it/index.php>
- 중국
 - <http://www.nwccw.gov.cn>
 - <http://www.women.org.cn/>
 - <http://www.chinapop.gov.cn>
 - <http://www.molss.gov.cn>
- 인도
 - <http://wcd.nic.in>
- 인도네시아
 - <http://www.menegpp.go.id/en/>
- 사우디아라비아
 - <http://www.mol.gov.sa/en/AboutMinistry/Organizations/Pages/GeneralDepartmentofWomenEmployment.aspx>
 - <http://mosa.gov.sa/portal/modules/smartsection/item.php?itemid=5>



- <http://www.shura.gov.sa/wps/wcm/connect/ShuraEn/internet/comm>
- http://www.saudichambers.org.sa/2_9982_ENU_HTML.htm

• 멕시코

- <http://www.inmujeres.gob.mx/>
- http://www.indesol.gob.mx/web_ingles/inicio.html
- <http://www.conapred.org.mx/>
- <http://www.inmujeres.gob.mx/>

• 브라질

- <http://www.minzdravsoc.ru/>
- http://www.presidencia.gov.br/estrutura_presidencia/sepm

• 아르헨티나

- <http://www.cnm.gov.ar/>

• 러시아

-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cedaw26/usr5.pdf>
- <http://www1.umn.edu/humanrts/cedaw/cedaw-russianfederation.htm>

• 터키

- <http://www.ksgm.gov.tr/>

• 남아프리카공화국

- <http://www.thepresidency.gov.za/>
- <http://www.info.gov.za/aboutgovt/dept.htm>
- <http://www.info.gov.za/index.html>

• 유럽연합

-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2&langId=en>
- <http://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656>